

투데이 칼럼

고품격 스피치

우리는 생활 스피치를 하루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적언에 “그 사람의 장점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의 습관은 가정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유년시절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말 잘하는 것을 천시하던 풍토가 있었다. 그러면서 쓰기나 읽기를 중시했다. 이런 일은 결국 표현력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토론 등을 통해 체계적인 말하기(스피치) 수업을 받는다. 때문에 표현과 감성이 있는 스피치, 체계적인 스피치, 효과적인 스피치를 잘 한다. 품위 있고 권위 있게 말하기, 호감 받는 말하기의 ‘고품격 스피치’ 요령을 알아보자.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다. 교양의 문체, 인문(人文)의 문체, 예(禮)와 예(藝)의 문체, 격(格)높은 문화의 문체이다.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몸과 마음에 저절로 배게 하는 일상생활의 습관이 중요하다. “말은 그 사람의 향기요 인격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양의 인프라를 두껍게 구축해야 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

이요, 그 사람의 생각의 표현이요, 그 사람의 지식의 표현이다. ‘교양은 감미로움과 영롱함을 추구하는 교운 심성’이라고 학자인 스위프트는 말했다. 또 다른 학자인 윌리엄스는 ‘교양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삶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교양을 순간순간의 호흡처럼 일상화해야 한다는 하나의 명제로 묶을 수 있다. 고품격 스피치의 문체는 교양의 일상화를 공공사회, 지역공동체, 가정과 교육기관, 매스컴 등에서 어떻게 구현하는 것인가 중요하다. 교양은 불필요한 학습이 아닌 실용 학문의 기초가 되는 다문화 이해할 수 있고 감성과 배려심을 기르는 학습의 요체다. 대인관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

로그랩을 통해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서 내적 이미지 요소, 외적 이미지 요소를 갖추는데 노력하자. 이것이 교양과 인격을 갖는 스피치맨이 되는 핵심이다. 현대는 속도의 시대, 개성소비의 시대다. 그 사람의 평가는 스피치 능력을 보고 판단한다. 누구나 잘난 맛에 사는 개성소비 시대에 스피치가 중요하다. 사람들과 관계를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표현과 감성이 있는 스피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의사소통이 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 고품격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호감 받는 대화 요령이 필요하다. 첫째, 1·2·3화법을 이용한다. 대화 때 나보다 상대에게 말하게 배려하고 맞장구 쳐주면 상대가 호감을 갖는다.



김양욱 한국스피치면접컨설팅 대표

둘째, 리드(lead) 화법을 이용한다. 상대의 욕구를 분석하여 듣고 싶어 하는 말, 상대와 관계 있는 말을 이용하면 쉽게 관계가 이루어진다. 셋째, 스몰토크(small talk)를 이용한다. 상대를 만나면 업무나 공적인 대화보다 사적인 대화를 먼저 하여 관계를 형성해야 호감을 갖는다. 넷째, 응대화법을 이용한다. 언어 예절을 지키면서 상호대화를 잘해야 그것이 고품격 대화이다. 적절한 존대말, 적절한 호칭, 친절한 담긴 마음의 대화, 긍정적인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 석가모니는 사람이 가만해도 남에게 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화안시’, ‘인시’라고 했다. 부드러운 얼굴로 남을 대하고 좋은 말로 배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말은 단순히 내 뱉는 것이 아니다. 귀와 눈을 열 때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 마음에서 나오는 내용을 잘 다듬고 정리하여 실행하자. 그것이 바로 원활한 의사소통의 길이다. 이것이 고품격 스피치이다. 말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스피치 능력을 기르는 학습을 해보자. 그래서 마음의 풍요로움, 생활의 활력을 찾아보자. 이것이 품격 높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사설

일베 성향 교사 징계 문제

일베 성향의 초등학교 교사를 징계해달라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전북교육청이 사안 파악에 나섰다. 일간베스트저장소 혹은 일베 저장소는 약칭 일베라고 불리며 2010년 개설된 인터넷 극우 커뮤니티를 말한다. 일간베스트저장소는 디시인사이드의 아구깁러리, 코미디 깁러리, 정치사회깁러리 등의 유머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최근 군산지역 학부모들은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일베 성향 유튜브를 구독하면서 이들이 쓰는 화법을 학생들에게 사용하고, 여성 비하 댓글을 올리는 등 교원 품위를 손상했다며 해당 교사를 징계해달라는 민원 270여건을 권익위에 접수했다. 전북교육청은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고,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은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어느 교육청은 일베에 음란물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은 초등교사에게 6개월간 학생 수업을 그대로 맡도록 방치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교육청은 징계 처분에 더하여 해당 교사에 대해 소속 학교로부터 분리 조치를 하고, 성비위 관련 징계처에 준하여 전문상담기관에서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 대해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공동체 회복교육 등 지원을 최대한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당 교사를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학교로부터 아동을 보호해 달라”면서 “해당 교사를 비호하는 교육청 직원과 해당 학교 관리자들이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간베스트라는 커뮤니티 명칭은 매일 추천할만한 유머자료들을 소개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모욕, 특정 지역과 여성 비하, 전직 대통령 모욕 등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전주시 청소행정 직영 가능한가

전주시 청소 행정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를 둘러싼 잡음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시는 노동단체가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청소행정을 직영 체제로 바꾸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 청소행정을 둘러싼 논란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가 가짜 직원을 내세우거나 쓰레기 양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스차에 휠씬 비싼 경유비를 지원하고 불법 파견을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민노총은 전주시와의 계약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한다. 2021년 4월에는 청소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였다. 이처럼 전주시 청소 행정은 최근 수년 동안 논란의 연속이었다. 결국 노동단체는 이 같은 민간 위탁 청소 행정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주민 조례 개정 청구에 나섰다. 전주시 조례에서 생활 폐기물 업무 대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전주시의 직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직영을 하면 매년 이윤, 일반 관리비, 간접 노동비, 기타 경비의 대부분이 절약될 것이며 종교차, 매각 대금은 전주시 수입이 된다”고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19세 이상 유권자의 10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으면 조례 개정안을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청구를 받은 지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안건을 올리고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주에서는 3개월 동안 5,399명이 서명하면 청구가 가능하다. 중남 태안 등 전국적으로 청소 업무를 직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 전주시도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AZ 백신 접종 후 휴식하는 대만 노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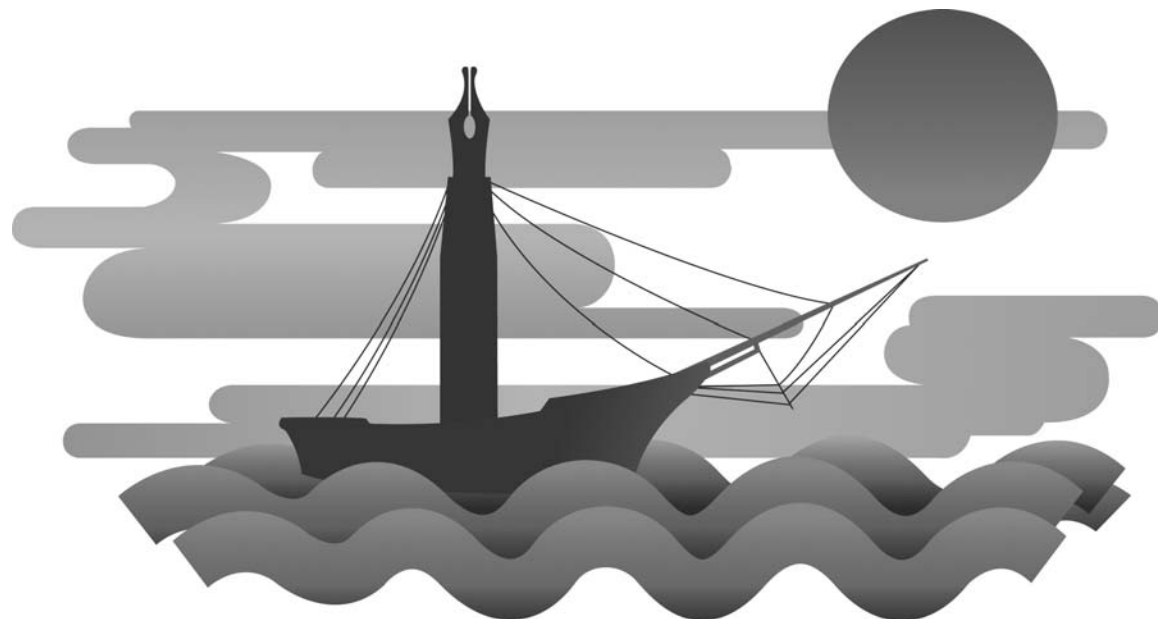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1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봉산 문화창의 공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

다카시, 덩기열 시즌 맞아 ‘모기와의 전쟁’



15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시 근로자가 모기 잡는 연막 운동을 하고 있다. 6월 정마로 덩기열 시즌이 돌아오면서 다카시 당국은 모기 퇴치 운동에 나섰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